

# BOK 이슈노트



##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및 영향

**이용대**  
한국은행 과장  
Tel. 02-731-2434  
leeyd06@bok.or.kr

**최종윤**  
한국은행 조사역  
Tel. 02-759-4192  
jongyoon@bok.or.kr

2018년 2월 13일

최근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활성화된 가운데 투자 업종, 목적 및 형태 측면에서 금융 위기 이전과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글로벌 자산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내 연기금 및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금융·부동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심화 등으로 신흥시장국 진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저임금 활용보다는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수평적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형태면에서 보면 IT 부문 대기업의 신기술 확보를 위한 해외기업 인수가 증가하면서 현지법인 설립 투자에 비해 지분인수(M&A 등)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같은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은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해외 금융·부동산업 투자 확대는 국내 기관의 수익률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기업의 신흥국 판로가 확대된 측면도 있다. 아울러 신기술 확보를 위한 지분인수 증가는 앞으로 국내 업체의 신성장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부정적 효과가 수반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외 부동산과 같은 직접투자 자산은 향후 글로벌 금융불안 발생시 대외리스크의 국내 파급경로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또한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 보듯이 현지시장 진출 과정에서 최종재와 중간재 생산체계가 해외로 함께 이전되면서 고용 및 투자 측면에서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수평적 투자 확대에 의해 늘어난 현지법인 매출이 국내 생산재 수출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글로벌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변화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조업 생산체계의 현지시장 진출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진출업체의 국내 복귀 지원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 중소 제조업체의 판로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고의 작성과 관련하여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배병호 국제무역팀장, 김근영 동향분석팀장, 박종현 차장께 감사드립니다.



## 1. 검토배경

2000년대 후반 자원개발 투자 이후 둔화되었던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sup>1)</sup> 증가세는 2015년부터 다시 확대되었다. 2014년 전년대비 8.1% 감소하였던 해외직접투자는 2015년 9.6%, 2016년 14.2% 각각 증가하였다. 금액 기준으로는 2016년 사상 최대치인 352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2017년 상반기에는 반기 기준 최고 수준인 236억달러가 투자되었다 (<표 1>).

<표 1> 연평균 해외직접투자액 및 증가율

(억달러, %)

기간	투자액 (연평균)	증가율 (연평균)
1991~95년	20	23.8
1996~2000년	45	10.1
2001~05년	57	6.5
2006~10년	210	27.4 <sup>1)</sup>
2011~14년	293	3.2
2015년	309	9.6
2016년	352	14.2
2017년 상반기	236	39.3 <sup>2)</sup>

주: 1) 2000년대 후반 자원개발 목적 투자 증가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이처럼 최근 크게 늘어난 내국인의 해외직접 투자는 투자 업종, 목적 및 형태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2)</sup> 우선 업종별로 보면 최근 금융·부동산업

투자가 급증하면서 과거 주된 투자 부문이었던 제조업 투자 규모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목적별<sup>3)</sup>로 보면 저임금 활용을 위한 수직적 투자보다는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수평적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모습은 최근 들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또한 형태면에서는 현지법인 설립(그린필드형) 투자에 비해 지분인수(M&A형)를 통한 신기술 확보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는 그 목적이나 유형에 따라 생산, 고용, 수출 등의 측면에서 국내 경제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Desai et al.(2005), 김현정(2008) 등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는 시장 확대 및 생산비용 절감, 중간재 수출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Feldstein(1995), 이홍식·강성진(2006) 등의 연구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 및 투자 제약, 해외 생산품의 국내 생산품 수출 대체 등을 통해 자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변화의 배경 및 파급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을 살펴본 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을 살펴본 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최근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가 투자 업종, 목적 및 형태 측면에서 금융위기 이전과 다른 양상을 시현

1) 본고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신고 기준이 아닌 실제 송금액 기준 투자액을 이용하였다.

2)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 동향은 <참고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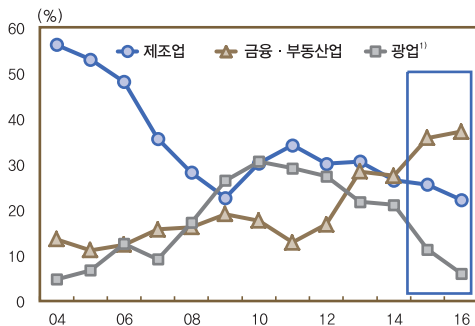
3) 해외직접투자는 목적에 따라 크게 수평적 투자와 수직적 투자로 분류된다. 우선 수직적 투자란 저임금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수평적 투자란 판로 확대를 위한 현지시장 진출 등 시장 접근성 제고 목적의 직접투자를 뜻한다(홍장표(2012) 등).

## II.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 가. 금융·부동산업 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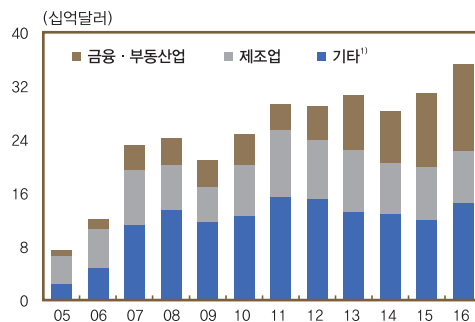
최근 늘어난 해외직접투자의 업종별 특성을 보면 과거에 비해 금융·부동산업 관련 투자는 크게 늘어난 반면, 제조업 투자 비중은 감소하였다. 2011년 13%에 불과했던 금융·부동산업 비중은 2016년 37%로 크게 늘어났으며, 금액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중 37억달러에서 130억달러로 약 3.5배 증가하였다(그림 1), (그림 2)). 이에 반해 2000년대 중반 50%를 상회 하였던 제조업 투자 비중은 2016년 22%로 크게 낮아졌으며, 금액 기준으로도 2011년 101억달러에서 2016년 78억달러로 축소되었다.

〈그림 1〉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비중



주: 1) 2000년대 후반 자원개발 투자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그림 2〉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금액



주: 1) 광업, 도소매업, 건설업, 출판업 등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이처럼 금융·부동산업 관련 투자가 크게 활성화된 것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자산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표 2〉)되면서 국내 연기금, 금융기관 등의 해외 금융자산 투자 유인이 높아진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진행 과정에서 미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을 크게 상회하였다(〈그림 3〉). 이로 인해 2016년의 경우 전체 금융·부동산업 해외직접투자의 48%가 미국에 투자되었으며(〈표 3〉), 그 결과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對미국 투자 비중이 2014년 21%에서 2016년 37%로 크게 상승하였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자산가격 상승 기대로 금융·부동산업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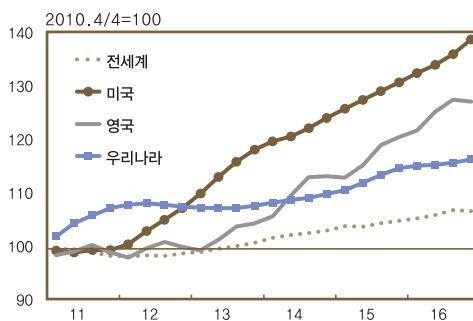
미국 부동산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대미 금융·부동산업 투자가 늘어나면서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미국 투자 비중이 증가

〈표 2〉 미국 부동산가격 상승률(상업용 기준)

연도	2009	2010	2011	2012~16	(2014)	(2015)	(2016)
상승률 (%)	-30.3	11.2	9.1	55.8	10.4	9.6	5.9

자료: IMF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그림 3〉 주요국 부동산 가격 지수<sup>1)</sup> 변화<sup>2)</sup>



주: 1) 주거용 기준  
2) 2010.4/4분기=100  
자료: BIS, IMF 글로벌 주택가격지수

과거 주된 투자 목적이었던 저임금 활용보다는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수평적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활성화

자동차 부품업체의 해외 진출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 현지시장 진출 투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까지 확산

〈표 3〉 금융·부동산업 투자의 대상국별 현황<sup>1)</sup>(2016년)

(억달러, %)

미국	케이만 군도	룩셈 부르크	영국	중국	기타	계
61.6	26.4	6.7	6.6	4.0	24.3	129.7
(47.5)	(20.4)	(5.2)	(5.1)	(3.1)	(18.7)	(100.0)

주: 1) 괄호안은 전체 금융·부동산업 투자 내 비중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이와 함께 최근 제조업 투자의 상대적 부진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성장세 약화에도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제조업 교역에 대한 중간재 교역의 기여 정도가 약화<sup>4)</sup>되는 등 글로벌 생산분업의 확장세가 둔화되어 왔다. 또한 과거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하였던 중국의 자급률 상승<sup>5)</sup> 등으로 중간재 수요가 감소한 것도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해외직접투자 축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과거 주된 제조업 해외투자처였던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05년 39%에서 2016년 9%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표 4〉).

〈표 4〉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대상 국가별 비중

(%)

	2005	2013	2014	2015	2016
미국	17.2	18.9	20.7	22.6	36.6
중국	39.4	16.9	11.3	9.6	9.4
홍콩	5.2	2.9	2.2	6.2	4.3
베트남	4.6	3.8	5.7	5.2	6.4
케이만군도	0.9	5.0	8.0	9.6	9.2
호주	1.4	8.7	5.6	2.8	2.4
싱가포르	1.7	1.8	3.5	4.7	3.2
일본	2.1	2.5	1.8	5.8	0.8
네덜란드	0.2	5.7	2.8	1.3	0.6
기타	27.3	33.9	38.4	32.1	2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나.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수평적 투자 확대**

최근 해외직접투자 중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수평적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과거 주류를 이루었던 저임금 활용 목적의 수직적 투자 규모를 상회하고 있다.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제조업 부문 수평적 투자<sup>6)</sup>는 2003~2009년 누적 기준 157억달러에서 2010~2016년 350억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2%에서 59%로 크게 높아졌다. 또한 과거 저임금 활용이 주된 투자 목적이었던 對중국 투자에서도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가 2003~2009년 66억달러(38%)에서 2010~2016년 116억달러(58%)로 증가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최근 들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제조업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제조업 부문 현지시장 진출 투자는 2014년 45억달러에서 2016년 52억달러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현지시장 진출 투자 규모가 같은 기간 7억달러에서 11억달러로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표 5〉). 실제로 자동차 산업의 경우 완성차 제조업체와 부품업체가 해외로 동반 진출하면서 생산분업체계가 모두 해외로 이전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완성품 제조업의 현지시장 진출 투자는 2009~2012년 누적 기준 21억달러에서 2013~2016년 13억달러로 감소한 반면, 자동차 부품업체의 수평적 투자는 같은 기간 17억달러에서 31억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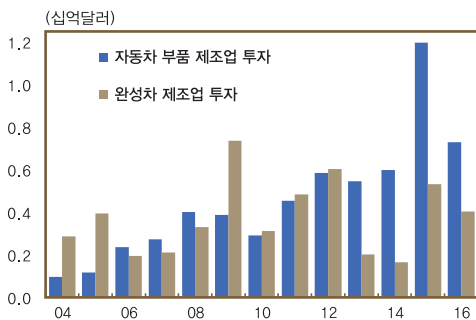
4) WTO(2017)에 따르면 글로벌 제조업 교역 성장에 대한 중간재 교역의 기여율은 2001~08년 52.0%에서 2009~14년중 50.2%로 낮아졌다.  
 5) 국제산업연관표(WIOD)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중국 제조업의 중간재 투입 자급률은 2004년 86.6%에서 2014년 92.4%로 상승하였다.  
 6) 제3국 진출 목적 투자 포함

〈표 5〉 제조업 목적 및 기업규모별 투자액<sup>1)</sup> 변화

기간	저임금 활용 <sup>2)</sup>	현지시장 진출	(억달러)	
			(대기업)	(중소기업)
1997~2009	19.5	13.7	11.1	2.1
2010~2013	27.0	50.9	42.8	6.3
2014	21.4	45.2	37.3	6.8
2015	19.7	48.9	37.7	9.6
2016	21.7	52.2	39.3	11.5

주: 1) 기간중 연평균 2) 수출 촉진 목적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그림 4〉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업 해외투자<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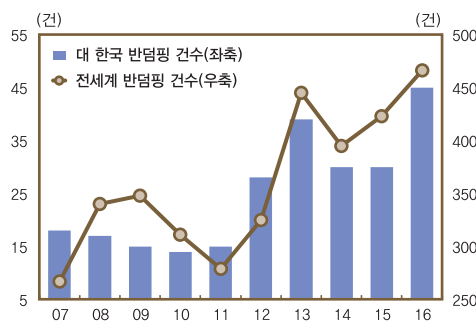


주: 1) 현지시장 진출 목적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이와 같은 현지시장 진출 투자 확대는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심화로 인해 우리 기업의 신규 시장 개척 필요성이 높아진 데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반덤핑, 셰이프가드 등과 같은 무역구제조치가 늘어나면서 국가간 무역장벽이 높아져 왔다. 실제로 전세계 반덤핑 건수는 2011년 279건에서 2016년 46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sup>7)</sup> 특히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건수가 2011년 15건에서 2016년 45건으로 급증하는 등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영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그림 5〉). 이러한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기업은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것보다 해외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현지매출을 확대함으로써 무역장벽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對 한국 및 전세계 반덤핑 건수<sup>1)</sup>



주: 1) 조사 개시 및 시행 기준  
 자료: WTO

이와 함께 대기업·중소기업간 분업 밀착 관계가 중소 제조업체의 현지시장 진출을 촉진한 측면도 있다. 상당수의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는 타 기업과 수직적 하도급 관계에 있으며, 특정 대기업과의 납품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sup>8)</sup> 이에 따라 자동차 부문 사례에서 보듯이 대기업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시 상당수의 부품 공급업체가 원활한 납품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외로 동반 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저임금 활용 목적의 수직적 투자 비중이 감소한 것은 주요 직접투자 대상국 인건비가 높아진 데 주로 기인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의 누적 기준 최대 투자 대상국인 중국의 실질임금은 2000년대 이후 약 4배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무역장벽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도 보호무역주의 영향이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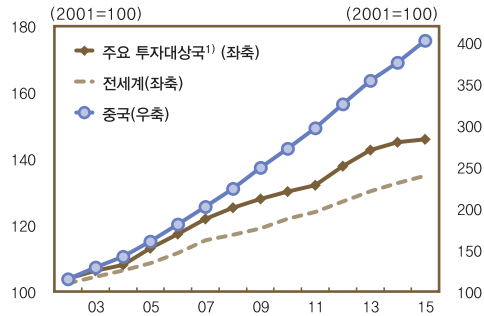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심화에 따른 해외 현지시장 진출 필요성, 대기업·중소기업간 수직적 하도급 관계가 수평적 해외직접투자를 촉진

7) WTO 기준

8)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의 47%가 대기업 또는 타 중소기업과의 하도급 관계에 있으며, 이중 대기업 납품업체의 경우 거래 상대방 대기업수가 평균 1.5개에 불과하다(2015년 기준, 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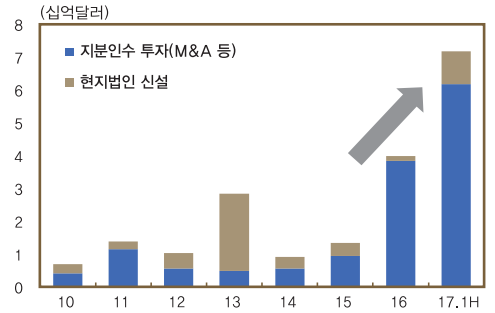
증가하였다. 또한 여타 주요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의 임금 상승률 역시 전세계 평균 임금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그림 6〉).

〈그림 6〉 중국 및 주요 투자대상국 실질임금



주: 1) 베트남,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말레이시아, 필리핀, 러시아, 태국, 슬로바키아 등 9개국의 평균값  
 자료: 국제노동기구(I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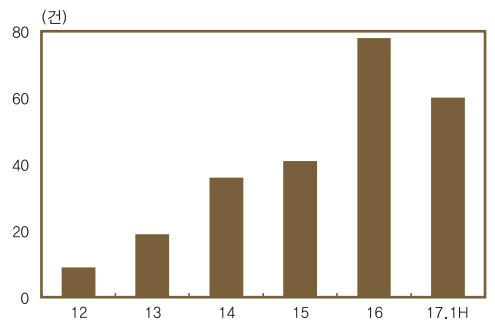
〈그림 7〉 신기술 확보 목적의 해외직접투자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최근 지분인수 투자 증가는 신성장 산업 내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 IT기업 매입을 통해 선진 기술을 확보할 유인이 높아진 데 주로 기인한다. 실제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바이오와 같은 신성장 산업에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인수·합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례로 인공지능산업에서의 글로벌 M&A 건수는 2013년 19건에서 2016년 78건으로 늘어난 바 있다(〈그림 8〉). 특히 최근 들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IT부문 거대 기업의 적극적인 유망 기업 인수·합병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대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 산업 경쟁에 본격적으로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인공지능산업 글로벌 M&A 건수



자료: CB Insight

**다. 신기술 확보 목적의 지분투자 증가**

국내 대기업의 IT분야 해외 유망업체 인수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신기술 확보 목적의 지분투자가 증가

인공지능 분야 등 신성장 산업에서 글로벌 M&A가 크게 늘어나는 등 전세계적으로 경쟁이 심화

2016~2017년 상반기중 신기술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 등 지분인수 투자가 현지법인 설립 투자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2011~2015년중 누적 기준 75억달러였던 신기술 확보 목적의 해외직접투자는 2016년~2017년 상반기 112억달러로 급증하였는데, 이중 지분인수 투자가 90%(100억달러)를 차지하였다(〈그림 7〉). 이처럼 신기술 확보 투자가 늘어난 것은 국내 대기업의 IT분야 해외 유망업체 지분인수 투자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 실례로 2017년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미국의 자동차용 전기·전자장치 제조업체를 인수하였으며, 네이버는 인공지능분야 진출을 위해 일본 로봇 제조사를 인수한 바 있다.



### III.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해외직접투자는 목적, 형태 등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 본장에서는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 가. 긍정적 영향

금융·부동산업 관련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국내 기관의 투자 수익률 제고에 기여하였다. 국내 연기금, 금융기관 등은 저금리에 따른 투자 수익률 저하에 대응하여 해외 부동산 투자와 같은 대체투자를 확대하였다. 대체투자란 발전소, 터미널 등 인프라, 부동산, 벤처기업, 개발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2014~2016년중 해외 부동산을 포함한 대체투자에서 연평균 14.1%의 수익률<sup>9)</sup>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국내 주식(0.7%), 채권(4.3%) 등 여타 자산의 투자 수익률을 상회<sup>10)</sup>하는 수준이다(<표 6>). 국내 금융기관이 주로 투자한 해외부동산펀드<sup>11)</sup> 역시 여타 펀드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자본시장연구원(2017)에 따르면 해외부동산펀드<sup>12)</sup>의 최근 3년간 누적 수익률(2017년 8월말 기준)은 19.1%로 주식형(11.4%) 및 채권형(6.8%) 펀드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러한 높은 투자 수익률로 인해 국내 금융기

관의 투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2013년 이후 해외부동산 펀드 규모가 급증<sup>13)</sup>하였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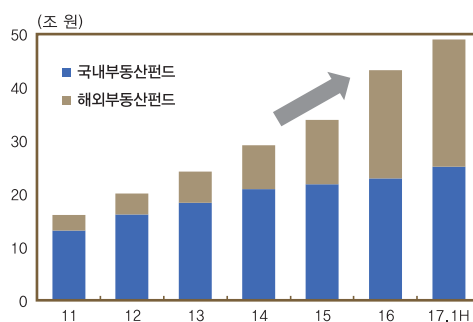
<표 6> 국민연금의 투자자산별 수익률(2014~16)

		(조원, %)	
		투자잔액 <sup>1)</sup>	수익률 <sup>2)</sup>
국내	주식	102	0.7
	채권	279	4.3
	대체	22	7.8
해외	주식	86	8.6
	채권	23	4.7
	대체	42	14.1
기타		4	
전체		558	4.8

주: 1) 2016년말 기준  
2) 2014~2016년 연평균  
자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금융·부동산업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국내 연기금, 금융기관 등의 투자 수익률 제고에 기여

<그림 9> 국내 및 해외부동산 펀드<sup>1)</sup> 규모



주: 1) 국내에 개설된 펀드, 기말 잔액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또한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수평적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우리 기업의 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국 시장 확대에 기여

9) 금액가중수익률 기준

10) 국민연금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2012년 15조원에서 2016년 42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말 현재 해외 대체투자의 약 46%(19조원)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되었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11) 해외부동산펀드는 해외 자산 매입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가 해외직접투자에 포함된다.

12) 사모 펀드 기준

13) 국내에 개설된 해외부동산 펀드 규모는 2012년 3.9조원에서 2016년 20.3조원으로 급증하였으며,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 비중 역시 같은 기간중 40% 수준에서 70% 내외로 증가하였다(자본시장연구원, 2016).

철강, 화학 부문 등에서 현지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심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고자 노력

평적 투자의 국가 및 지역별 비중 변화를 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및 중남미 신흥국 비중(〈표 7〉)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내 기업의 對신흥국 매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례로 현대자동차는 인도 공장 완공(2008년) 후 현지 판매 및 제3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그림 10〉), 브라질 공장 완공(2012년) 후에는 현지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기도 하였다.<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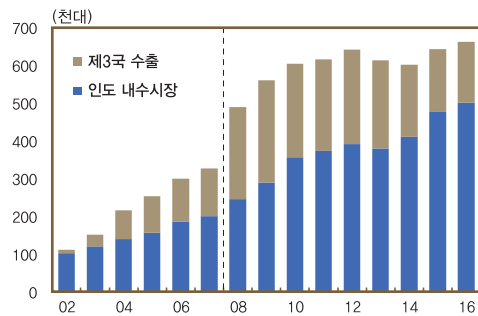
〈표 7〉 제조업 수평적 투자의 국가 및 지역별 비중

(% , %p)

지역	2001~05 [A]	2006~10	2011~16 [B]	증감 [B-A]
북미	32.6	15.9	8.6	△24.0
중국	48.4	37.6	33.7	△14.7
유럽	6.0	13.1	8.2	+2.2
아시아 <sup>1)</sup>	9.7	28.4	32.2	+22.5
중남미	0.3	3.6	16.0	+15.7
기타	3.0	1.4	1.3	△1.7
전체	100.0	100.0	100.0	-

주: 1) 중국 제외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그림 10〉 현대차의 인도 현지 생산·판매 현황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현대자동차 인도법인

아울러 현지시장 진출은 최근 심화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현지 진출 기업은 브라질,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시장에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심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말 현재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업종별로 보면 철강·금속 및 화학부문이 대부분을 차지<sup>15)</sup>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이들 부문에서 수평적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표 8〉). 국가별로도 신흥시장국의 무역구제조치가 증가<sup>16)</sup>하였는데, 특히 철강·금속 부문의 경우에 대응하여 2010~2016년중 브라질(12억 달러), 인도네시아(7억달러), 인도(6억달러) 등을 중심으로 수평적 투자를 확대하였다.

〈표 8〉 업종별 제조업 수평적 투자 규모<sup>1)</sup>

(억달러)

업종	2003~09	2010~16	증감
철강·금속	14.6	45.4	+30.8
자동차	40.7	71.4	+30.7
화학	13.2	43.3	+30.1
전자	31.3	50.2	+18.9
기계	4.6	21.0	+16.4
기타 <sup>2)</sup>	52.2	118.5	+66.3
계	156.7	349.8	+1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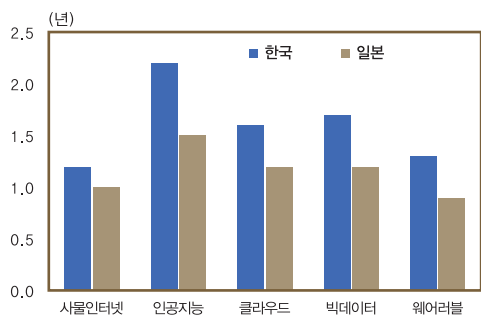
주: 1) 기간중 누적 투자액  
2) 기타 운송장비, 고무제품, 전기장비 등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14)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시장 점유율은 2012년 3.2%에서 2016년 11.5%로 상승하였다(브라질 자동차산업협회).  
15) 2017.12월 현재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총 193건을 업종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87건, 화학부문이 58건으로 전체 규제 건수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16) 국가별 무역구제조치를 보면 미국(31건) 외에 인도(31건), 중국(15건), 브라질(11건) 등 신흥시장국의 조치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해외 신기술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 등 지분투자가 늘어난 점은 향후 급속한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신성장산업에서 국내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주요 신성장산업에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미국, 일본 등에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그림 11). 이를 감안할 때 국내 기업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업체를 인수할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비해 빠른 시간 안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외 지분투자는 그 이점이 있다. 또한 최근 사례를 보면 국내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음향 관련 전자업체를 인수하거나, 인터넷 포털 업체가 로봇 제조업체를 인수하는 등 해외직접투자가 산업간 기술융합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그림 11〉 주요 신성장산업의 미국과의 기술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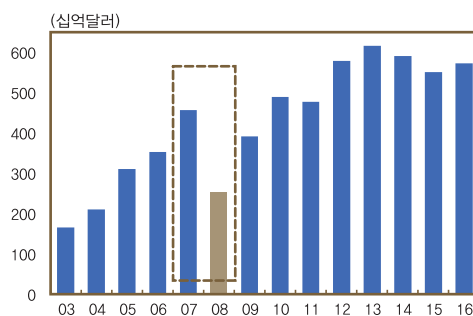
자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7)

#### 나. 부정적 영향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업종, 목적 및 형태 변화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산가격 변동에 민감한 금융·부동산업 관련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난 점은 향후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시 금융불안의 추가적 파급경로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실제로 2000년대말 금융위기 당시 국내 주식, 채권 등 간접투자부문을 중심으로 해외 자금이 급속히 이탈(그림 12)하면서 글로벌 금융불안이 국내로 파급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과 같이 금융·부동산업 관련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 경우 내국인의 해외 보유 투자자산이 대외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글로벌 금융불안을 국내로 전이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은 주식, 채권 등에 비해 신속한 처분이 어려워 가격 하락시 손실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금융·부동산업 관련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향후 자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수익이 감소하거나 평가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투자기관의 재무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2〉 외국인의 국내 간접투자 자산 규모<sup>1)</sup>



주: 1) 국제투자대조표(IIP) 증권투자 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아울러 최근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직접투자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제조업체로까지 확대된 점은 국내 고용 및 투자에 부정적인

신기술 확보를 위한 해외기업 인수 확대는 향후 신성장산업 내 국내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최근 확대된 금융·부동산업 해외직접투자는 글로벌 자산가격 급변동시 금융불안의 국내 파급 경로로 작용할 가능성

해외 현지시장 진출이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까지 확산됨에 따라 국내 고용 및 투자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심화

과거 해외직접투자는 중간재 수출 유발 효과가 컸으나 최근 현지법인 매출이 늘어나면서 국내 생산품의 수출을 대체하는 효과가 확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대기업 중심의 현지시장 진출은 저임금 활용을 위한 수직적 투자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sup>17)</sup> 그러나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와 같이 최종재와 중간재 생산체계가 모두 해외로 이전되는 경우 기존 연구 결과와 달리 국내 고용 및 투자를 구축할 소지가 있다. 실제로 상장된 자동차 부품업체 중 해외직접투자 경험이 있는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고용 및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8)</sup>(〈표 9〉).

〈표 9〉 자동차 부품업 고용 및 투자의 회귀계수<sup>1) 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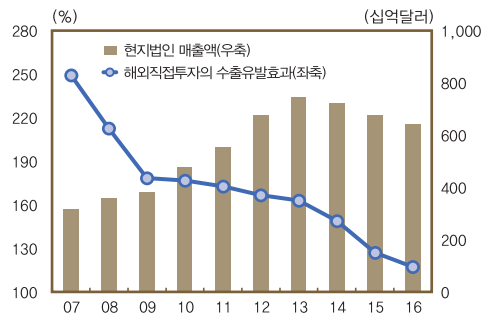
업종	계수값 <sup>3)</sup>	
	고용 증가율	투자 증가율
상수항	0.084**	0.194**
매출액 증가율	0.066	0.304**
부채비율	-0.020**	0.004
영업이익률	0.001	0.001
해외투자 더미	-0.051**	-0.132**
Adjusted R <sup>2</sup>	0.06	0.03

주: 1) 이은석 외(2012)를 기초로 Pooled-OLS 모형 설정  
 2) 상장된 자동차 부품업체 53개를 대상으로 분석  
 3) \*\*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자체 추정

한편 수평적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현지법인의 매출 확대는 수출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긍정적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해외직접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수출유발효과와 수출대체효과로 구분된다. 수출유발효과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수출대체효과는 해외 법인의 현지매출이 확대되면서 국내 생산 제품의 수출이 감소하는 것을 지칭한다. 과거 해외직접투자는 對현지법인 수출 확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였으나, 최근 들어 현지법인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출대체효과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對현지법인 수출/해외직접투자 잔액'으로 측정된 수출유발효과가 2011년 173%에서 2016년 117%로 크게 하락하였다<sup>19)</sup>(〈그림 13〉). 또한 수출 결정 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과거 유의한 양(+)의 값을 가졌던 해외직접투자의 계수값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축소되었으며 유의성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그림 13〉 현지법인 매출액<sup>1)</sup>과 직접투자 수출유발효과<sup>2)</sup>



주: 1)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한 현지법인 기준  
 2) 對현지법인인 수출액/직접투자 잔액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17) 이은석 외(2012), 홍장표(2012), 황선웅(2017) 등은 저임금 활용 목적의 수직적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을 축소시키는 데 반해 시장확대를 위한 수평적 해외투자는 국내 고용 및 투자를 구축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18)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참고 2〉 참조

1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각 호

(표 10) 수출에 대한 변수별 회귀계수<sup>1)2)</sup> 변화

변수	계수값 <sup>6)</sup>	
	1998~2005	2006~2016
해외직접투자 <sup>3)</sup>	1.06**	0.27
실질 GDP <sup>4)</sup>	1.84**	2.05**
세계수입물량지수	1.83**	0.98**
원/달러 환율 <sup>4)</sup>	-0.11	-0.25
교역조건	-0.38	-0.08
더미변수1 <sup>5)</sup>	0.28**	-
더미변수2 <sup>5)</sup>	-	8.53
Adjusted R <sup>2</sup>	0.79	0.87

주: 1) 박동준, 김현태, 최영준(2012)을 기초로 모형 설정  
 2) 2006년 이후 제조업 비중 감소를 반영하여 기간을 구분.  
 4분기 증가율/ 차분변수를 이용  
 3) 국제투자대조표(IIPI)상의 해외직접투자 잔액  
 4) 전가값을 이용  
 5) 더미변수1: 외환위기 기간(1998.1/4~4/4)  
 더미변수2: 금융위기 기간(2008.4/4~2009.2/4)  
 6) \*\*는 5%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자체 추정

#### IV. 종합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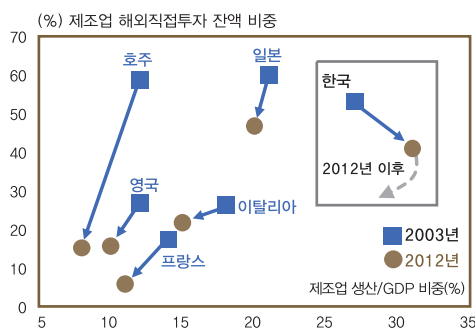
과거 저임금 활용을 목적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금융·부동산 관련 투자, 시장 확대 목적의 수평적 투자, 해외 유망기업 보유 신기술 확보를 위한 지분인수 투자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해외직접투자의 최근 변화는 국내 투자기관의 수익률 제고, 제조업체의 신흥국 진출 확대 및 신성장 산업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와 함께 금융불안과 같은 대외충격의 국내 파급경로 확대, 국내 고용·투자·수출에 대한 구축효과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도

일부 수반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나타난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GDP 대비 제조업 생산 비중과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비중이 동반 감소하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역시 이와 유사한 경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14). 실제로 2016년 OECD 국가들의 대한국 직접투자 현황을 보면 서비스업이 전체의 61%를 차지한 가운데 제조업은 38%에 불과하다. 아울러 향후 신흥국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신성장 산업의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신기술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나타난 해외직접투자의 업종, 목적 및 형태 측면의 변화는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그림 14) 제조업 해외투자<sup>1)</sup> 및 제조업 생산/GDP



주: 1) 해당국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잔액 기준  
 자료: OECD Stat, World Bank

한편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및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외 금융·부동산 관련 투자는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변화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금융

최근 해외직접투자에 나타난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기관 및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제조업 생산체계의 동반 현지시장 진출로 인한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진출업체의 국내 복귀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관련 법령<sup>20)</sup>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요건에 수도권 과밀 억제, 중소기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제한적 요소가 많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sup>21)</sup> 이에 따라 지원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 중 국내 복귀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sup>22)</sup>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 중소기업 스스로 자체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판로 다양화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수출 및 판로 관련 지원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대기업과의 일방적 납품 관계로 인해 중소기업이 갖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 우리나라는 2013년 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투자보조금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1) 현행 국내 복귀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복귀는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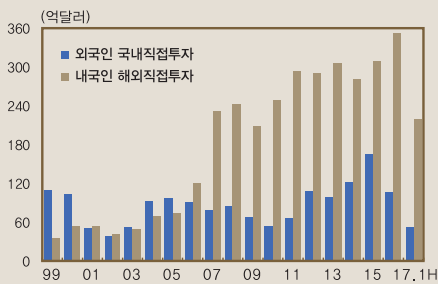
22) 국내복귀 후 1년간 중소기업은 근로자 1인당 720만원, 중견기업은 360만원 한도로 각각 고용창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100인 이내).

〈참고 1〉

최근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 동향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도착 기준)는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하회하고 있다(〈그림 15〉). 2000년대 연평균 70억달러 내외였던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점차 회복되어 최근에는 연간 10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다만 2016년에는 106억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36% 감소하였으며, 2017년 상반기에는 53억달러를 기록하였다(〈표 11〉).

〈그림 15〉 내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표 11〉 외국인 연평균 국내직접투자

(억달러, %)

기간	금액	증가율 <sup>1)</sup>
2001~05년	66	8.7
2006~10년	75	-10.2
2011~13년	91	25.1
2014년	122	22.9
2015년	165	36.2
2016년	106	-35.9
2017년 상반기	53	4.0 <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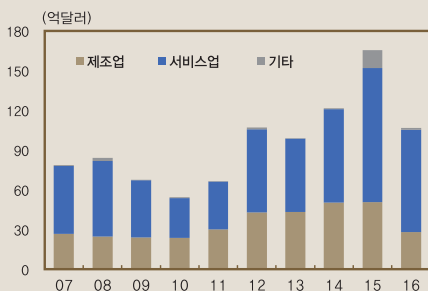
주: 1) 기간중 연평균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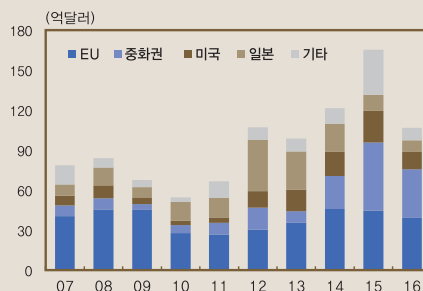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를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그림 16〉). 실제로 서비스업 투자는 2013년 55억달러(56%)에서 2016년 77억달러(73%)로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같은 기간 43억달러(44%)에서 27억달러(26%)로 감소하였다. 국가별로 보면 유럽 국가의 국내직접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2014년 이후에는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국가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그림 17〉).

〈그림 16〉 주요 업종별 외국인 국내직접투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17〉 주요 국가별 외국인 국내직접투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고 2〉

자동차 부품업체의 고용 및 투자에 관한 실증분석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기업의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투자 경험이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자동차 부품업체의 거시 자료를 이용할 경우 개별 기업의 매출액, 부채비율 등 경영성과를 통제하기 어렵고 연간 자료의 시계열이 짧아 유효성 있는 분석이 어렵다. 이에 따라 본고의 실증분석에서는 개별 업체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고용 및 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Pooled-OLS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해외직접투자를 실시한 그룹과 실시하지 않은 그룹간의 성향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DID(Difference-in-Difference) 추정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홍장표(2012) 등), 금번 실증분석에서는 분석 대상을 해외직접투자 경험이 있는 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분석 방법을 단순화하고 투자 시점 이후 고용 및 투자 변화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증분석은 국내에 상장된 91개 자동차 부품업체 중 해외직접투자 경험이 있고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투자 개시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05~2016년(12개년)으로, 관측치는 총 636개이며 KIS-value에서 제공하는 업체별 재무제표 등 경영공시정보를 각각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이은석 외(2012)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고용 및 투자 행태식을 추정하였다.

$$Y_{i,t} = \alpha + \beta X_{i,t-1} + \gamma D_{i,t-1} + \varepsilon_{i,t}$$

- $Y_i$  : 고용인원 증가율 또는 유형자산 증가율(업체의 변수)
- $X_i$  : 매출액 증가율,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 $D_i$  : 해외직접투자 더미변수(투자 개시연도부터 1의 값)



## 〈참고문헌〉

- 김수연(2015), “해외 M&A 현황 및 발전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5.9
- 김종호, 김유신, 한경목, 이재우, 하병기, 조진환(2011), “해외투자의 수출입유발효과 분석 및 정책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수출입은행, 2011.7
- 김현정(2008), “해외직접투자와 국내투자의 관계 분석”, 경제분석, 제14권 제1호, 2008. I, pp.1~41
- 대한상공회의소(2014),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4.3
- 박동준, 김현태, 최영준(2012), “해외직접투자 확대의 경상수지에 대한 영향 분석”,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12.6
- 산업통상자원부, KOTRA(2016), “2017 해외투자진출 종합가이드”, KOTRA자료 16-052
- 산업통상자원부, KOTRA(2016), “2016 국내복귀기업 지원 종합가이드”, KOTRA자료 16-038
- 신현수, 민성환, 김재덕, 김정현(2015), “한국 제조업의 해외생산과 수출의 관계 연구”,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768
- 양금승,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특징분석 및 U턴 촉진방안”, 한국경제연구원, KERI Brief 201.7.5
- 이은석, 이정욱, 박나연, 김유신(2012), “국내기업 해외현지생산 확대의 영향 및 시사점”, BOK 경제리뷰, 2012.7
- 이태규(2016), “주요 신성장산업의 기업 국제비교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KERI Brief 201
- 이홍식, 강성진(2006), “직접투자의 탈산업화에 대한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 06-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자본시장연구원(2016), “해외부동산투자펀드의 성장 및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16-01호, 자본시장연구원, 2016.10
- 자본시장연구원(2017), “부동산펀드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17-19호, 자본시장연구원, 2017.9
- 장영재, 이혜민(2010), “글로벌화 진전에 따른 국내외 투자행태 변화 분석”,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10.7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7), “2016년도 ICT 기술수준조사보고서”, 2017.7
- 중소기업청(2016), “2016 중소기업실태조사조사결과(제조업)”, 2016.12
- 제현정(2012), “확대되는 해외직접투자, 우리 수출에 득(得)인가 실(失)인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Vol.11, No.46, 2012.12
- 조성재(2017), “한국 제조기업들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와 일자리”, 월간 노동리뷰, 2017.6

홍장표(2012),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발전연구 제18권 제1호, pp.115-142, 2012.6

황선웅(2017),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일자리”, 월간 노동리뷰, 2017

Desai, M. A., Foley, C. F., and Hines Jr., J. R.(2005),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Domestic Capital Stock”, NBER Workign Paper 11075, January 2005

Feldstein, M. S. (1995), “The Effects of Outbound Foreign Direct Investement on the Doemstic Capital Stock”, In Feldstein, M., Hines, J. R., and Hubbard, R. G. (eds.), The Effects of Taxation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Chicago: Unversity of Chicago Press), pp.43-63

Mian, A. and Sufi, A. (2015), “House of Debt: How They (and You) caused the Great Recession, and How We can prevent It from Happening Agai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5

OECD (2017), “OECD Economic Outlook”, Vol.2017 Issue.2: Preliminary version, OECD Publishing, November 2015

WTO (2017),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17”, July 2017

Copyright © THE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BOK 이슈노트 No.○○○○-○에서 인용”하였다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커뮤니케이션국 뉴미디어팀(02-759-539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